



## 찬스마다 딱걸리는 김주형·안치홍 안터지는 방망이 속터지는 호랑이

‘공수의 핵’ 두 선수 컨디션 회복이 KIA 성적 변수로

외야수 이용규·2루수 안치홍·3루수 이범호 1위

### ① 프로야구 전망대

#### KIA, 삼성과 홈·롯데와 원정

휴식일이었던 4일에도 무등경기장 야구장은 부산했다.

출주는 타선에 합당한 원정 6연전을 치르고 돌아온 KIA는 안치홍·김주형·송산·이호신·윤완주를 불러 특타를 진행했다. 발목 부상으로 선수단과 함께 하지 못했던 이순철 수석코치까지 나와 이들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KIA는 지난주 두산·SK와의 원정에서 2승을 거두는데 그쳤다. 3일 장단 14안타를 몰아치며 SK에게 11-2의 대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패를 기록한 4경기에서 총 득점은 3점에 불과했다.

특히 1·2일에는 이를 연속 0-1의 무득점 행진을 하며 마운드의 애간장을 태웠다. 한국무대 두 번째 등판에 나선 소사는 1실점 완투패를 기록했고, 서재응도 6이닝 1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KIA는 이번주 삼성과의 주중 홈 3연전에 이어 사직으로 이동해 롯데와 주말 3연전을 갖는다. 안치홍·김주형이 공수에서 키플을 쥐고 있다.

3할 고공행진을 했던 안치홍은 타격패이스가 떨어지면서 지난주 7번까지 타순이 내

### ■ 2012 프로야구 중간순위 (6월 4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승부	승률	게임차	연속
1 SK	44	24	19	1	0.558	0	1패
2 롯데	46	24	20	2	0.545	0.5	1패
3 넥센	46	23	21	1	0.533	1.0	1승
4 두산	45	23	21	1	0.523	1.5	1승
5 LG	46	23	22	1	0.511	2.0	1승
6 삼성	46	22	23	1	0.489	3.0	1패
7 KIA	44	20	22	2	0.476	3.5	1승
8 한화	47	17	29	1	0.370	8.5	1패

려앉았다. 원정 6연전 타율은 22타수 5안타, 0.227를 기록하면서 시즌 타율도 0.277로 떨어졌다.

재활을 마치고 돌아온 김주형의 방망이도 잠잠하다. 김주형은 2·3일 7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전했지만 하나의 안타를 때리는데 그쳤다. 원정 6연전 타율은 0.125. 특히 2일 0-1로 뒤지던 4회 1사 만루에서 1루수 파울 플레이로 풀러서는 등 득점권 상황에서 그의 침묵도 계속되고 있다.

두 선수는 홈런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KIA의 ‘한방’ 재목이기도 하다. 올 시즌 팀 첫 홈런 주인공인 안치홍은 지난 5월9일 이후 홈런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김주형은 지난 시즌 사직에서 3경기 연속 홈런을 날린 적이 있다. 또 수술 전 마지막 타석이었던 지난해 8월21일에는 대타만루홈런

을 쏘아올리며 팀의 6연패를 끊기도 했지만 아직 홈런포를 가동시키지 못했다.

수비에서도 두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든든한 방어선을 구축했던 안치홍의 올 시즌 기록된 실책은 2개지만 아슬아슬한 플레이가 이어지면서 내야가 흔들리고 있다.

김주형도 최희섭이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등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 있어 1루수 영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김주형의 실책=실점’이라는 징크스 아닌 징크스를 가지고 있다.

두 선수의 집중력이 KIA의 순위싸움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KIA는 앞서 니와 장원삼이 맞붙는 5일 신에 배터리로 호흡한다. 신고선수 출신의 포수 한성구가 처음으로 1군 무대를 밟고, 3년차 좌완 임기준도 어깨가 뭉친 서재응을 대신해 엔트리에 등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올스타전 베스트 10 인기투표 외야수 부문 1위 KIA 이용규

### 올스타전 투표 중간집계

롯데 포수 강민호가 올스타전 베스트 10 인기투표 1차 중간집계에서 최다득표 선수를 달렸다.

이스타리그(삼성·SK·롯데·두산)의 강민호는 1차 중간집계에서 19만9704표를 획득해 19만6369표를 얻은 웨스턴리그(KIA·LG·한화·넥센) 투수 류현진을 335표차로 제치고 득표 경쟁 선두로 나섰다.

홈런 1위의 웨스턴리그 유격수 강정호는 19만5718표로 전체 득표수 3위에 랭크됐다. 2위 류현진과는 불과 651표차로 최다득표 선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KIA에서는 2루수 안치홍(18만7858표)·3루수 이범호(17만6023표)·외야수 이용규(17만2380표)가 포지션별 1위를 자리를 지켰다.

구단별로는 롯데가 5명으로 가장 많고 KIA와 LG가 3명, SK·두산·한화·넥센이 2

명, 삼성에서는 지명타자 이승엽 홀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가장 큰 표차를 보이고 있는 포지션은 이스타리그 포수 부문으로 1위 강민호와 2위 두산 양의지(7만7495표)가 12만2209표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스타리그 3루수 부문에서는 SK 최정(15만2688표)과 롯데 황재균(14만3339표)이 9349표차로 가장 근소한 차이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1차 집계에서 40만3872표의 유효투표수가 기록되면서 오는 7월8일까지 계속되는 최종 집계에서 역대 최다 득표수(162만3576표·2011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는 KBO(www.koreabaseball.com)와 네이버(www.naver.com), 팍도, 9개 구단, Sports2i, 프로야구선수협회 등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KBO LIVE 프로야구 2012), 웨비마트(매장 내Postbox)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 집계 후 20명을 추첨해 윌슨 선수용 글러브를 증정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 FC 감독 최만희·주장 김은선

#### ‘K리그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

광주 FC 주장 김은선이 4일 최만희 감독과 함께 파주에서 ‘K리그와 함께하는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에 참가했다.

이번 활동은 A매치 주간 휴식기를 맞아 이뤄졌으며 K리그 16개팀 감독과 선수, 한국프로축구연맹 정몽규 총재 그리고 팬으로 구성된 ‘K리그 사랑 봉사단’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7개조로 나눠 다문화가정(2세대)과 기초생활수급가정(5세대) 등 총 7세대에 각각 투입돼 도배, 장판 교체, 단열 작업, 욕상 방수 작업, 싱크대 교체, 지붕 보수, 페인트 작업 등을 했다.

박경훈 제주 감독과 김병지(경남), 김형범(대전), 김상식(전북), 유경렬(대구)은 일일

축구 코치로 변신해 파주 읍곡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축구 클리닉을 열기도 했다.

광주를 대표한 김은선은 “도배하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지 몰랐다. 봉사활동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몸은 힘들지만 마음이 뿌듯하다”며 “축구 외적인 곳에서 또 하나의 배움을 느꼈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김은선과 최만희 감독은 목포에서 조직력 강화 훈련 중인 선수단에 재합류, 오는 7일까지 훈련을 이어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Hole in one and Dynasty Zon EVENT

| 기간 | 2012년 6월부터 ~ 종료시 까지  
| 내용 | 지경호 출신원 및 다이내스티즌 성공시 혜택  
| 대상 | 주중 내장팀에 한함

### Hole in one

임페리얼 7번홀  
마제스티 12번홀  
팰리스 20번홀

- 혜택
- 팀 전원 그린피 면제 (개별소비세, 카트비 별도)

### Dynasty Zon

팰리스 27번홀

- 혜택
- 팀 전원 300cc 생맥주 제공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사랑하는 아리랑하우스 여/름/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 1등 맛집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http://www.geumsoojang.com)